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헤어를 두 개가 나라와 여성을 구원했다

이 시점에 꼭 써야 할 글이기에 쓴다. 탄핵심판 선고의 날, 나라를 구원한 것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마감한 21분의 명징하고 깔끔한 선고문만이 아니었다. 그 날 바빠 출근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뒷머리에 꽂혀 있던 헤어를 두 개였다.

헌법재판소가 광장에서 일어난 세계에 유례없는 평화적 촛불혁명을 명예혁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정 낭단으로 추락된 국격과 흔들리던 국민 자존감을 확실하게 올려 줬다면, 그 헤어를 두 개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 때문에 추락된 모든 여성의 자존심과 모든 일하는 여성의 자부심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줬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른다.

나는 아침에 그 사진을 보자마자 쩌해졌다. 일하는 여성이라면 다 한 번쯤 해봤을 실수다. ‘아차’ 하고 출근길이나 중요한 회의 가는 길에서 머리에 남은 헤어를 알아채는 건 일하는 여성의 일상 풍경 중 하나다. 오죽하면 나는 일주일까만 색 헤어를 마련해 두고 사용할까. 혹시 머리에 남아 있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보

이지 않도록 말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그 흔하다 흔한 ‘분홍색’ 헤어를 썼다.

눈에 띄는 그 분홍색 헤어를 두 개의 ‘OO’ 모양 덕분에 금방 패러디들이 올라왔다. ‘8 : 0’의 예언, ‘인용’의 예고라는 해석과 함께 말이다. 나는 또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현명하면 이런 패러디를 할까? 조롱은 일체 없었다. 국민이 고맙고 또 고맙았다. 해외 언론까지 박수를 보냈다. ‘그 헤어물은 이 시대,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의 상징’이라면서.

다음 날 광장에는 헤어를 두 개를 머리에만 사람들은 가득 찼다. 웃음보가 터졌다. 여성들만이 아니었다. 남성들도 기꺼이 헤어를 두 개를 맡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호쾌하게 웃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가방에서 주섬주섬 헤어를 꺼내서 다 같이 두 개씩 맡고 인증 사진을 찍는다. “이 헤어를 두 개는 우리가 한 일이예요. 우리가 지켜낸 가치예요. 앞으로도 지킬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면서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했던 그 헤어를 역사 유물로 보관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좋다. 앞으로 3월 10일을 헌법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장에서 모두 헤어를 두 개를 머리에 마는 상징적 행사를, 대를 이어 가며 하면 어떨까? 딸에게,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일이라. 헌법을 지키는 건 그렇게 중요하단다. 헌법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란다. 선조들은 그렇게 명예롭게 헌법의 정신을 지켰단다” 하면서 말이다.

다시 일하는 여성으로 돌아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을 모욕했고 지금도 모욕하고 있다. SNS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여성 대통령이 나오려면 백 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돌고, 안그래도 극렬해지는 ‘여성혐오’ 현상을 부추기는 발미로 쓰이기도 한다. 스스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했던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여성의 수치가 되고 일하는 여성의 치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박근혜는 진정 일하는 여성이었던 적이 없다. 피부 가꾸고 주름 없애고 머리

윤기 내고 화장받 올리고 색깔 맞춘 의상 준비하는데 쓴 그의 시간이 부끄러울 뿐이다. 일하는 여성도 물론 아름다울 권리, 젊어보일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기가 별지 않은 돈으로, 더구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여성으로서 스스로 헤어를 맡아 보기를 나는 바란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내기 어려운 그 올림머리 스타일을 건어차기 바란다.

똑같은 스타일을 고집하려면 차라리 가발을 쓰라. 5분이면 가발 쓰고 사건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 세월호 일곱 시간의 비밀 같은 게 있을 이유도 없고, 파편 되어 돌아간 전 대통령의 자택 첫 손님이 전속 미용사일 이유도 없다. 이 시대가 무슨 로코코 시대냐?

박근혜는 일하는 여성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그 헤어를 두 개는 일하는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여기에서 그칠 수 없다. 모든 일하는 여성의 건투를 바란다! <전 국회의원, 도시건축가>

의료칼럼

바이오콜라겐과 재생치료



기철현 광주새우리병원장

손상된 조직이 재형성되기 위해서는 콜라겐의 양이 조직에 따라 30~70%가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연부조직과 결합 조직에 많다. 콜라겐은 자연적인 치료과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질로서 장기 발달, 상처회복, 조직재생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1형 콜라겐’은 수성 용매로서 젤의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물리적 특성과 낮은 항원성을 가진 좋은 생체적합물질로서 치료 목적으로 쓰기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젤 형태의 콜라겐 주입은 치료과정 중 생성되는 콜라겐의 양을 미리 보충하고 콜라겐 다발의 보충, 밀도 강화, 조직적 배열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조직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콜라겐, 즉 생체 조직 세포 재생을 위한 성장인자를 고순도, 고효능의 순수 분리 정제된 생체 친화적 콜라겐을 이용한 조직재생유도(Guided Tissue Regeneration) 주사요법은 손상된 조직 또는 장기를 자연적인 치료과정을 통해 보완, 강화 및 수복하는 것이다. 리젠실과 같이 콜라겐을 이용해

직접적인 조직재생과 증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콜라겐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이상반응이 적게 나타나고, 다양한 증상에 적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연부조직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

얼마 전 68세 남자 환자가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했다. 수십년간 견축일을 했던 사람으로 통증으로 인해 운동이 자유스럽지 못했고, 이학적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돼 약물치료를 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관찰돼 매주 1회씩 3주간 초음파 유도하 파열부에 콜라겐 주사요법을 시행했다. 이후 파열부의 조직 재생도 확인하고, 환자의 어깨 운동 범위 호전 및 통증도 완화됐다.

56세 여자 환자는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병원을 찾아왔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느라 주로 서서 일한 탓에 육안으로 좌측 무릎에 내반슬(오다리)이 관찰됐고, 방사선 검사상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예만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다. 물론 필자는 수술(근위 경골 절골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을 원하지 않아 콜라겐 주사요법을 매주 1회씩 5주간 치료한 결과 통

증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40세 남자 환자는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했다. 사무직에 종사하지만 평소 운동을 즐겨했고, 주 3회 이상 골프 연습을 했다. 이학적 검사상 외측 상과부의 통증 및 안통 그리고 손목을 펴면 통증이 심해져 테니스 엘보우(외측 상과염)가 진단돼 타병원에서 수차례 주사 치료를 했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콜라겐 주사 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이 없어 완화됐다.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한 39세 여성도 있었다. 등산을 주말마다 다니는 사람인데, 무릎 관절 내에 물이 차서 타병원에서 물을 몇 차례 뺐으나 지속적인 통증 및 관절 운동 장애를 호소했다. 무릎 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콜라겐 주사 요법을 실시하자 물이 차는 증상이 없어지고 통증도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어깨의 활액막염, 점액낭염 환자, 손목의 힘줄염 환자,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아킬레스건염 환자 등을 상대로 콜라겐 치료를 시행했다. 대부분 조직 재생 효과를 보였고, 통증 완화 및 증상의 호전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기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한국은행의 고민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다 급격하게 유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80년대초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긴축정책(금리 인상)을 펴자 중남미 국가에서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갔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내수 과열과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자본 회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과 이에 따른 외환 위기로 연결됐다.

이처럼 국제투자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는 것은 신흥시장국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미국 달러와 같은 결제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기축통화를 보유할 나라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국제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기축통화국가에 투자한 돈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 미 달러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신흥시장국은 외환위기에 취약하게 된다. 또한 신흥시장국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 등으로 채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도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자들은 미국 등 기축통화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더 높은 수익, 즉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신흥시장국에 요구하게 된다. 기축통화 국가의 금리에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을 얹어 주어야 신흥시장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할 때 신흥시장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투자 매력이 약화되어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신흥시장국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사에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목표금리가 0.50~0.75%이고 우리나라는 1.25%이니 한국은행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몇 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목표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와 비교하여 경제적 기초가 양호하면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다면 자본유출이 늦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서 한국은행이 꼭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제대로 낮아질 수 있는 수준

(실효화한)을 상승시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 즉 정책 공간(policy space)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사드 문제 등과 연계된 한-중간의 갈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한국은행의 정책 공간을 줄이는 요인들이다.

만약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가 과다한 한계가구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다소 상승하여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를 잘 조정해 나간다면 금리 상승에 의해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하며 정책당국자들은 집단지성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현재의 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한국은행에게 정책 공간을 넓혀주어 국내경기 및 가계의 채무부담 문제에 보다 집중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대선주자들 지역현안 공약으로 응답하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선 공약은 전라도 정도 천년(2018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들로 선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역 공약은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산업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을 중심으로, 전남도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선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중심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등 총 예산 43조 687억 원의 공약 과제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시구 지정 ▲글로벌 에너지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원아시아(One Asia) 슈퍼그리드 구축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등 총 85조 원의 지역 공

약을 선정했다. 문제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실천하는가 하는 점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들 지역과제를 이행하려면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은 짧은 선거 기간으로 지역 공약이 적폐 청산이나 통합과 같은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각 대선 주자들은 이들 공약이 공약(空約)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을 제시해 지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5월9일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됐다. 또한 법보수 진영의 우려한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오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에 따라 대선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치권은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을 5월9일로 지정하는 한편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은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단 황 권한대행이 일가의 우려를 씻고 대선일을 조속히 결정할 것은 잘한 일로 평가된다. 어차피 치러야 할 조기 대선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결정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혼란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법보수 세력의 부추림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했다면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황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당연한 결과”, 국민의당은 “당연한 결정”, 바른정당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이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말대로 위기의 국정을 수습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로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미래를 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레스토랑 ‘노마’는 전 세계 미식가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유명하다. 오너 셰프인 르네 레드제피(39)가 2003년 개업한 ‘노마’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출판하는 ‘미슐랭가이드’에서 ‘별 두 개’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영국 유명 잡지 ‘레스토랑’이 선정한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르네 차레나 뽑히기도 했다.

지난해 개봉한 다큐 영화 ‘노마: 뉴 노르디 쿨진의 비밀’을 보면 르네 레드제피의 요리와 인생철학을 만날 수 있다. 요리 사는 ‘먹을거리가득한 행성의 탐험가’라고 말

때부터 지금까지 주방에서 일해 왔다. 르네 레드제피 역시 마케도니아 이민자 출신이다. ‘덴마크인보다 더 덴마크인 같은 100% 스칸디나비아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발칸반도로 꺼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12명의 자녀를 둔 손코는 늘 웃는 모습으로 동료와 손님들을 대했다. 손코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최고의 동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존중해 준다”고 말했다. 르네 레드제피는 “이번 소유자 등재는 손코의 노고와 오랜

접시 닦이 CEO

미소에 대한 담례”라고 화답했다. 다큐 속 직원들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노마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중에서도 르네는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가진 아빠 같은 존재다.”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것처럼 도전합시다. 계속 함께 실패합시다”라고 의지는 CEO와 함께 뛰었고,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노마에서 한 신한 또 다른 직원 두 명도 공동 소유주가 될 예정이라는데... 참 부럽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함께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이유로 그가 선택한 건 ‘북유럽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다. 초창기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비웃음 속에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살아 있는 개미를 식탁에 올리고, 길가에 핀 꽃잎과 숲속 이끼를 채집해 재료로 삼기도 했다.

며칠 전 ‘노마’에서 일하던 종업원(접시 닦이)이 공동 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감비아에서 농부로 일하다 34년 전 덴마크에 정착한 알리 손코(62)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개업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m.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